뇌경색… 신부전증… 매일 2시간 투석

투병가수 김상범 '눈물의 재기'

김상범

"이제 슬픔도 한도 없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야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뜻에서라도 분명 재기할 겁니다."

'오똑이인생'의 가수 김상범씨(62). 그가 오똑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95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신부전증까지 겹치면서 하루 2시간씩 투석을 해야하는 어려움속에서도 김씨는 신곡 '건강을 위하여'(김상범 작사 김다위 작곡)를 발표했다. 현숙의 매니저로 더 잘 알려진 그의 이같은 재기가 가요계는 물론 연예계 전체에 대단한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건강을 위하여'는 그가 투병생활을 하며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친구에게 투혼을 불어넣는 노랫말이 자못 감동적이다.

"현숙이에게 진짜 미안했어요. 근 5년동안 내 병원비를 대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서든 꼭 재기해야겠다는 목표를 얻었습니다."

그는 21일 방영하는 MTV '가요콘서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의 기적같은 재기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PD들이 적극 후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제는 김씨의 매니저가 된 현숙 또한 '김상범의 재기'를 알리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재기한 선생님과 꼭 함께 출연할 겁니다'. '효녀가수' 현숙의 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황용희기자·hee@〉

현숙

신곡 '건강을 위하여' 발표
연예계 전체에 감동물결
"병원비 대준 현숙에 감사"

46년을 이어온 괴수영화의 원조 '고지라'의 최신판 '고질라 2000'

'고지라 최신판 '고질라 2000' 새달 한국 - 미국 동시개봉 에일리언과 혈투신 압권

신장 55m, 몸무게 2만5천톤의 괴수 고질라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공격한다.

일본 괴수영화의 원조 '고지라'의 최신판 '고질라 2000'이 한국(8월12일)과 미국(8월18일)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되는 것.

일본의 '고지라'에서 모티브를 얻어 우리나라에서는 '용가리'를, 미국에서는 '고질라'를 각각 제작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는 점에 비춰보면 흥미롭다. 1998년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고질라'가 일본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미 전역 1천3백여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된다.

일본에서 40여년간 고수해온 '고지라'라는 이름을 할리우드식의 '고질라'로 바꿨다는 것도 세계시장을 겨냥한 인상이 짙다.

게다가 오래된 고질라영화의 형식으로는 신세대의 입맛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 착안, 고질라 대 인류, 인류 대 에일리언, 그리고 고질라 대 에일리언이라는 얽히고 설킨 삼각형 대결구도를 만들어 재미를 더했다.

인류의 환경파괴에 분노한 고질라가 호카이도에 나타나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다. 고질라의 거대한 힘에 의해 인류가 위기에 처했을 즈음 갑자기 에일리언이 지구를 침공한다. 고질라는 태도를 바꿔 인류의 편에 서서 에일리언에 맞서 싸운다. 후반 10여분 고질라와 거대 에일리언의 혈투가 압권이다.

'고질라 2000'은 우리나라는 물론 '고질라'를 제작한 미국시장에서의 흥행이 관건이다.

〈유진모기자·ybacchus@〉

지수원 4년만에 스크린 복귀

'배니싱 트윈'주연 맡아

'투캅스 걸' 지수원(31)이 4년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지수원은 새로운 스타일의 미스터리 멜로 '배니싱 트윈'(윤태용감독 Y2시네마 제작)의 주인공 유진을 맡아 1996년 '투캅스2' 이후의 오랜 공백을 깬 것.

'배니싱 트윈'은 쌍둥이태아중 한명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의학용어. 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태아가 쌍둥이일 확률은 10%.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적다. 그중 무려 85%가 '배니싱 트윈'으로 자궁내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지수원이 맡은 유진은 변호사인 남편과 사이에 6세된 딸을 둔 20대 후반의 주부. 그녀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겉으로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면은 쌍둥이언니에 대한 콤플렉스로 상처투성이다. 언니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것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또다른 면을 발견하고 거짓으로 위장돼 있었던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일본 컬트계의 거장 쓰카모토 신야감독의 '쌍생아' 혹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셧'과 여러모로 비교가 될 것이다.

〈유진모기자·yabcchus@〉

가요단신

이승철 29일 콘서트

폭발적인 가창력의 이승철이 오는 29일 오후 7시, 11시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Saturday Night Fever'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테크노와 이승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검은 고양이' 등 그동안 발표됐던 이승철의 평키한 댄스음악이 테크노로 리믹스돼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외 세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디스코 발라드 테크노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02)1588-7890

김창완 임지훈 22일 도쿄서 콘서트

김창완

임지훈

중견가수 김창완(46)과 임지훈(41)이 일본 도쿄에서 라이브 무대를 갖는다.

오는 22일 도쿄에 위치한 재일한국 YMCA 콘서트홀인 스페이스 와이에서 오후 4시, 7시 두 차례에 걸쳐 조인트 무대를 꾸미는 것.

'추억'이라는 타이틀로 마련되는 공연에서 두 가수는 재일동포를 비롯해 유학생, 일본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감미로운 통기타 선율을 앞세워 사랑과 추억의 노래를 들려준다.

이번 콘서트는 일본내 한국어방송 KNTV의 광고대행사인 KNTV에이전시(대표 손덕기)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주일대사관과 문화원, KNTV가 후원한다. KNTV에이전시는 지난해 5월 이승철 이선희 컨츄리꼬꼬 등 인기가수들을 초청해 공연을 치렀고 오는 10월에도 이승철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고야=류수근특파원·hamlet@〉

스타카페

HOT "컴백콘서트 열까 말까"

잠실주경기장 양보후 공연장 못구해 발동동

"마냥 늦출 수도 없고, 포기하기도 힘들고…고민이에요~."

HOT가 속을 태우고 있다. 다음달 15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5집발매 기념 콘서트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프로축구 올스타전'에 양보한 후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해서다. 톱가수들이 사용하는 올림픽공원내 체조경기장 등은 수용인원이 6천~7천명 선이어서 예상 관객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8월중에는 신보활동을 시작해야 하기에 최악의 경우 콘서트를 접고 방송활동부터 들어간다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열성팬들의 공연에 대한 기대가 높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원〉